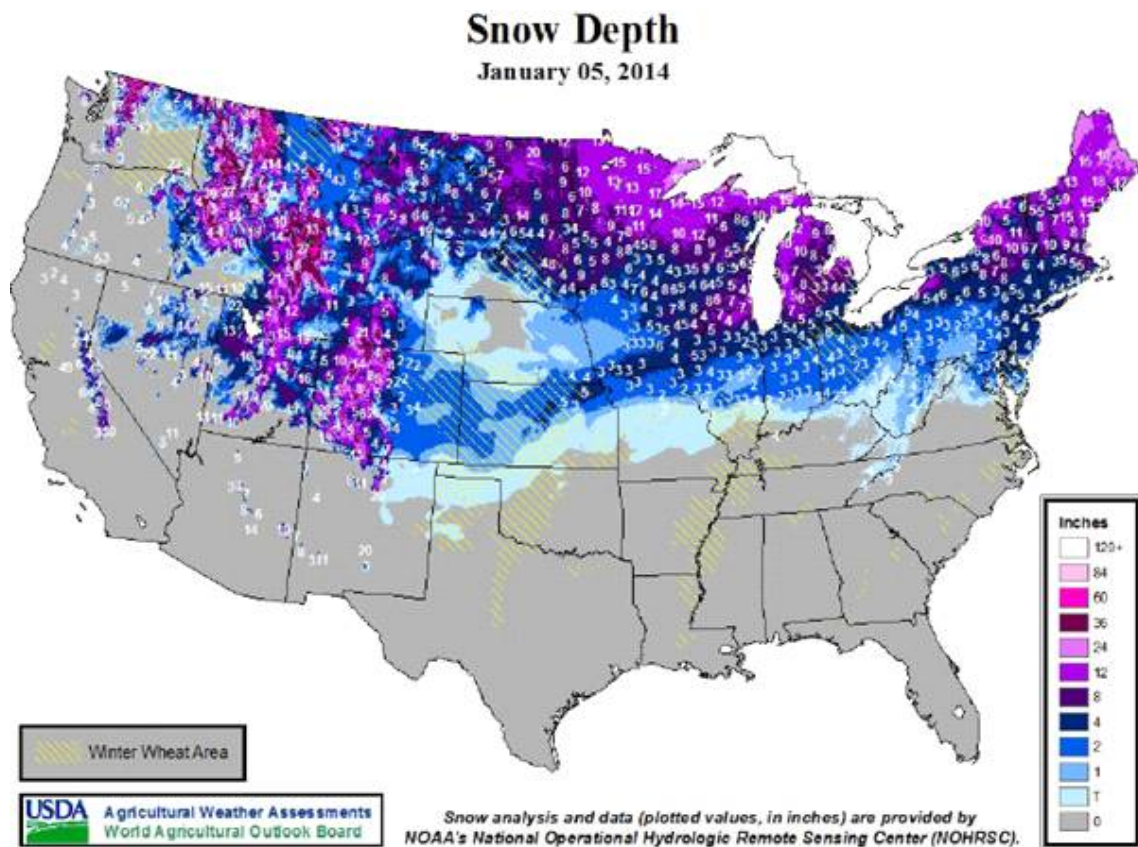


※ 1월 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1)

□ 미국 기후 현황(2013/12/29~2014/1/4)

겨울 폭한이 Dakotas에서부터 New England 지역까지 강화되었으며, 주간 온도는 평년대비 10 ~20°F를 하회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New England 북부와 Midwest 상단의 경우 영하 20°F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 Minnesota 지역의 경우 영하 30°F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남부 Atlantic 지역과 대다수의 태평양 연안 및 고원 평야 지대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였다. 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난 소나기와 눈이 내리는 기상조건을 제외하고 건조한 날씨는 서부의 온화한 날씨는 북부 태평양, 북서부와 북부 및 중부 Rockies 지역에 수반되어 나타났다. California 지역에서는 3년 연속 가뭄이 지속되어 방목장의 상태 유지 및 여름 물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말쯤 나타난 강한 한파로 인해 일부 밀 재배지역은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었으며, 중부 Mississippi 계곡과 Great Lakes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2013/12/30~2014/1/5)



지난 한 주간 대부분의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Atlantic 연안에만 한 주간 1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Florida를 제외한 Rocky 산맥을 기준으로 한 모든 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중서부 상단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평년대비 10°F 낮은 기온을 나타냈다.

□ 세계 기후 현황(2013/12/29~2014/1/4)

- 유럽: 중부와 서부 유럽의 건조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동부 유럽에서는 비가 내리고 따뜻한 날씨가 유지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에 지속된 고기압은 폴란드, 발틱주, 발칸반도에 이르기 까지 건조함과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기온(평년대비 5°C 이상 높음)을 나타나게 하였다. 지속된 온난함으로 인해 더 추워진 동부 농업 지역의 경우에는 1월 초 작물들이 눈에 파묻혀 가을밀과 유지작물이 혹한에도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었다. 서부 유럽에서는 대서양의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넓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발생(2~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이 기록됨)하였으며, 북부 농업지역의 발아를 앞둔 겨울 곡물에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주었으며, 스페인 지역의 가을 밀과 보리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 수분 함량도 향상시켜 주었다. 불안정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부 유럽의 기온은 평년대비 3°C 이상 높았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작물에 영향을 끼치는 겨울 혹한을 피할 수 있었다.
- 구소련(서부): 건조한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월동 밀의 생육 조건을 유리하게 유지하게 하였다. 기온은 평년대비 2~6°C 정도 높았으며, 동해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나 이 지역의 눈으로 뒤덮인 들판을 침식시키기도 하였다. 주말 주요 남부 가을 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았으나, Belarus와 Ukraine 및 중부 Russia 지역의 경우 2~20 cm의 적설량이 기록되었다.
- 호주: Queensland와 북부 New South Wales 지역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여름 곡물에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잠재적으로 수확량 감소를 전망할 수 있었다.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수와 같은 작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대량의 수분이 증발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 (일반적으로 5 mm 미만) 으로 해석된다. 면화와 같이 관개가 요구되는 작물들은 극도로 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물을 공급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여름 곡물 생산지역에서의 일일 최고 기온은 30°C 후반~ 40°C 중반을 기록하였다. 반면 밀 벨트 지역의 경우,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5-15 mm)가 남동부 호주지역의 최종 겨울 작물 수확을 지연시켰다. 서부 호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겨울 곡물과 유채의 수확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 지역의 수확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아르헨티나: 더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비가 내려 상당한 구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소나기는(지난 주 남서부 아르헨티나 농업 지대에 내린) 는 주요 중부 및 북부 농업 지역에 확대되어 내렸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량이 25~100 mm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남부지역에는(대부분의 La Pampa와 Buenos Aires 지역) 비가 내린 후

더욱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Santa Fe와 Entre Rios를 포함한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 주간 기온은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북부 지역(Salta와 Santiago del Estero에서 Corrientes)의 경우에는 평년대비 1~ 2°C 높은 기온을 유지하였다. 계절에 맞지 않는 고온이 북부 아르헨티나 지역에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낮 최고 기온이 40°C에 육박하였다. 남부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은 비가 내리기 전에는 30°C 중·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온난한 날씨가 이어졌다. 강수량과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어야 옥수수와 같은 작물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2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은 각각 78%, 83%로 전년동기 대비 살짝 뒤쳐진 상황이다. 또한, 가을 밀의 수확은 97%(전년동기 대비 14%p앞섬)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브라질: 남부 브라질에는 비가 내려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으며, 대두와 옥수수와 같이 몇 주 동안 건조함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곡물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Sao Paulo에서 Rio Grande do Sul 지역의 총 강수량은 50~ 150 mm를 기록하였으며,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2°C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 기온은 30°C 초·중반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나기(25~100 mm)가 중부 브라질에 내렸으며, Mato Grosso에서 남부 Minas Gerais 지역의 대두, 면화, 커피와 같은 작물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계절에 맞지 않는 건조함이 북동부에서 서부 연안에 이르기까지 지배적이었다. Goias, Bahia, Minas Gerais 지역의 건조함은(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2°C 이상 높았으며, 난 최고 기온은 30°C 중·후반인 것으로 나타남) 대두, 면화, 다른 수분이 필요한 여름 작물의 수분 함량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했다. 반면, 계절에 적합한 기온(최고 기온이 30°C 초반)일 경우에는 사탕수수, 코코아, 기타 관개 작업이 요구되는 작물의 생육을 도울 것으로 판단된다.